

넷플릭스·유튜브서 게임을?... 플랫폼, 인앱으로 수익 다각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가능성 확보
넷플릭스 GTA 더 트릴로지 서비스
유튜브 플레이어블 현재 한시적 진행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미니 게임 등을 직접 플랫폼에 이식하며 수익 다각화를 실험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이른바 ‘메가 IP’로 불리는 인기 게임들까지 포섭해 인앱 게임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넷플릭스는 29일(현지시간) 락스타 게임즈의 ‘그랜드 테프트 오토: 더 트릴로지 - 더 디피니티브 에디션’을 12월 1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 구독자는 추가적인 결제나 앱 다운로드 없이 넷플릭스 앱이나 애플 앱 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독립형 앱으로 GTA 더 트릴로지를 플레이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이미 모뉴먼트 밸리, 옥센프리, 헤즈 업!, 레고 레거시: 히어로즈 언박싱, 컨트리 프렌즈, 컷더 로프 등 유명 타이틀을 서비스하고 있다.

구글도 지난 24일(현지시간) 일부 국



넷플릭스는 이탈리아의 경정 시뮬레이션 ‘풋볼 매니저(FM)’ 시리즈에 이어 락스타게임즈의 히트작 ‘GTA’까지 인앱 게임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넷플릭스

가의 프리미엄 구독자를 대상으로 앱 내 무료 게임서비스 ‘플레이어블’을 출시한 사실이 전해졌다.

플레이어블은 유튜브 앱(APP) 내에서 별도 설치 없이 인기 게임 ‘앵그리버드’ 등 37개 게임을 제공한다. 게임을 제공받는 프리미엄 이용자는 유튜브 홈피드에서 다른 콘텐츠와 함께 플레이어블 섹션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게임은 추가될 예정이지만 현재 실험적으로 선

보이는 만큼 내년 3월 28일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유튜브와 같이 앱 내에 게임을 이식한 사례는 많다.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앱 내에서 ▲고고매치(GoGo Match) ▲머지보스(Merge Boss) ▲리얼농장(Real Farm) 등 미니 게임을 마련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를 쇼핑 쿠폰 등으로 환원한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따르면 진출 국가 200개

국 중 한국 이용자들의 인앱 게임 참여도가 가장 높고 평균 체류 시간은 일평균 20분에 달한다. 인앱 게임에 소극적인 국가 또한 당연히 존재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도 최근 게임 스튜디오 누버스를 축소하며 수백명의 게임 개발 인력을 해고했으나 틱톡 내에 미니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대변인은 “정기적으로 사업들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성장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 조정을 한다”면서 “최근 검토를 통해 게임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기존 더우인(Douyin) 내 게임이나 틱톡 내 게임은 이번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업체가 잇따라 미니게임을 인앱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에는 수익원 다각화와 이용자 록인(Lock-in)을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스타티스타의 분석에 따르면 2027년 전세계 게임 수익은 약 5330억 달러에 달하게 될 예정이며 미국의 경우 이미 2세대 게이머들이 성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1개 가구당 2명 이상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클라우드워즈의 조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77%, Z세대 소비

자의 81%가 게임을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주당 6시간 50분, Z세대는 주당 평균 7시간 20분을 게임을 하는 데에 쓰고 있다.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각각 60%, 42%만이 게임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게임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넷플릭스를 포함해 틱톡 등은 모두 정식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게임을 스트리밍 원격 플레이하는 것으로, 현재 플랫폼들이 추가 설치 없이 인앱 게임을 제공하는 방식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다. 향후 게임 이용자 수가 더 늘 경우 새로운 수익원으로 확실히 되기 때문이다.

IT업계 관계자는 “현재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 주체들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시도 중인 만큼 향후 클라우드 게이밍 허브가 나오는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현재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곳은 넷플릭스 정도기 때문에 기업 개별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중기부, 신산업 우수 초격차 스타트업 10개社 선정

초격차 스타트업 테크 컨퍼런스 개최
대기업·공공기관·VC 등 기술 세미나
신산업 기술 동향 등 전략 주제로 진행

신산업 분야의 우수 초격차 스타트업에 티움바이오, 그리너지, 마키나락스 등 10곳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전문가, 대기업, 공공기관, VC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 등을 진행하는 ‘초격차 스타트업(DIPS 1000+) 테크 컨퍼런스’를 30일 개막,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아갈 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합동으로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뉴스시스

해엔 이를 통해 295개사를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10대 신산업 분야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 있다.

이들간 행사에선 우수 신산업 스타트업 포상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신

산업 기술 동향과 초격차 스타트업의 진출 전략 등을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와 다양한 전문 패널이 참여해 토론하는 7개 신산업 분야 기술 세미나도 진행했다.

첫 순서로 열린 로봇 분야 세미나에는 위싱턴 포스트지에서 ‘로봇의 마법사’라고 지칭하고, 인기 TV 방송 ‘유퀴즈’에 출연한 캘리포니아대학교 로버트 커니즘 연구소장인 데니스홍 교수가 ‘더 가까워진 미래: 초격차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과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패널 토론 및 스타트업 대표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분야 반도체공학회장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부원장, 바이오헬스 분야 싱가포르 난양공대 조남준 교수, AI분야 마이크로소프트 이진복 이사 등 분야별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도 나와 초격

차 스타트업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초격차 스타트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기술 교류 및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대행사도 이틀 동안 펼쳐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실장은 “신산업 스타트업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신산업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창업대국을 이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확대, 해외 진출 지원 강화, 개방형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한킴벌리

생리대 첫 의약품 GMP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최초로 의약품 GMP를 획득했다.

30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여성용품 제조사업장으론 처음으로 의약품 GMP를 획득한 충주공장은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구현해 품질과 공정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충주공장은 좋은 느낌과 화이트 패드, 팬티라이너, 입는 오버나이트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의약품 GMP’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다. 품질 신뢰성과 우수성이 모두 입증된 대한민국 소재 제조업체에 한해 부여되는 만큼 전 제조 과정에 대한 적합성, 품질관리, 모니터링, 현장 심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어진다. /김승호 기자

LX판토스

ESG 이니셔티브 UNGC 가입

LX판토스가 ESG 이니셔티브(국제협약)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

30일 LX판토스에 따르면 UNGC는 전세계 167개국, 2만3000여 회원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UNGC 회원사들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 10대 원칙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그 이행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LX판토스는 UNGC의 기본 원칙을 지지하고 이에 따른 환경책임 및 기업윤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SKB, 방통위 방송평가 3년 연속 1위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채거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MSO) 분야에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이 출범한 후 2019년 3위에서 1위로 뛰어오르는 등 합병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방송평가에서 SK브로드밴드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가장

높은 393점을 얻었다.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장애인 시청자 지원 프로그램 편성,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은 만점을 받았다.

운영 분야인 인적자원 개발 투자,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분야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합병 후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 트렌드, 공감캠프 등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 기간 및 비용을 확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 C&C, 제조 현장 문제 실시간 해결

원격 제조 영상 협업 서비스 개발

SK C&C가 싱가포르의 협업 솔루션 전문기업 소프트웨어팩토리(I-FACTS) 기반 원격 제조 영상 협업 서비스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9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소프트웨어팩토리는 타이완, 중국, 베트남 등에 해외 지사를 두고 디지털 팩토리 분야 협업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

반의 고화질 영상 협업 솔루션 ‘페이스프로(FacePro)’는 포르쉐, 타타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 세계 각국에 세워지고 있는 제조·생산 시설 관리 시, 기술·운영·비용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통 해외 공장에서 공정 과정의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 엔지니어링 전문가가 파견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소모 등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서현 기자